

## 대한산업안전협회 ISO 9001 인증 획득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국은 품질경영체제인 ISO 9001, KS A 9001을 지난 11월 27일 시스템 기술인증원으로 부터 ISO인증을 받았다.

이번 ISO 9001의 인증은 "건설안전에 대한 설계, 개발, 점검, 진단 및 부가서비스"를 품질경영체제의 인증범위로 하고 있다.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기업의 품질, 환경 및 안전 경영시스템에 관한 세계 공통의 표준으로 제정한 일련의 규격이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건설부분에 있어 국제화 추세에 맞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안전관리대행, 제조부분의 진단·점검, 자체검사, 회원, 교육사업 등 전사업에 대해 ISO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 도시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개정

지난 12월 1일에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가 개정돼 새천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 산업자원부는 고시기준이 동법 시행규칙의 시설 및 기술기준과 연계되도록 고시편재를 재조정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시설 및 기술기준이 가스도매 사업자,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가스사용자로 되어있던 것에 반해 통합고시는 제조사, 배관, 정압기 등 시설별로 규정돼 혼선을 빚어 왔다.

## (주)흥아기연 『안전점검의 날』 행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위치하고, 자동성형접착포장기(BLISTER (P.T.P포장기))를 생산, 제조하는 (주)흥아기연은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안전관리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유망 벤처기업으로 12월 4일 오전 9시부터 '99년 산업안전경영대상 특별상 및 12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각계 전문단체와 함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노동부·매일경제신문에서 주관한 '99년 산업안전경영대상에서 특별상 수상한데 대한 기념행사와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

여 대한산업안전협회 이흥지회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조순문 이사장,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에서는 현장 전반적인 안전관리체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안전관련 사항 이행여부 및 유사시 사고대응체제 구축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

검한 결과 중소 벤처기업으로 보기 드물게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광양기업 초일류기업 인증 획득

'84년 설립 이래로 포철 광양제철소 가동과 동시에 우리나라 철강산업에 일조한 (주)광양기업은 초일류기업으로 선정되어 인증식을 가졌다.

기업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실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안전보건관리활동 추진 상태, 각종 규정을 포함한 서류심사 및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으로 상호 비교·분석·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주)광양기업은 금속제련업으로 환경개선과 시설관리로 포철의 생산성 향상, 지역환경 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 특별안전활동 강화, 기본의 실천, 플러스운동 추진, 선진시민의식 제고, 무재해 사업장 달성을 경영방침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해 Near Miss 보고제도 정착 및 활성화, 안전토론 활성화로 직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으며, 동료의 안전 지켜주기, 일일안전책임자 활동, 무재해 10배 달성, 환경 친화적 설비운영을 경영 목표로 과격하고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한산업안전협회

의 평가단은 (주)광양기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고, 지역사회의 환경·안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고 종합 의견을 밝혔다.



## 한전기공주식회사 안양지점 무재해 10배 달성

한전기공주식회사 안양지점(지점장 김영호)은 지난 1992년 4월 1일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후 2천7백70 일동안 재해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아 무재해 10배달성을 99년 12월 1일 달성하고 12월 14일 무재해 10배달성 행사 및 15배 달성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성기철 안양사무소장과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양지도원장 등 각계 인사와 무재해 10배 달성한 한전기공주식회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10배달성 인증서 수여와 무재해 15배(2005년 10월 14일) 달성을 위한 결의문체

택을 하였다.

이날 한전기공 부사장은 축사에서 전반적인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안전이 제1의 마인드로 전사업장에 확산시켜 안전을 정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전기공(주) 전 임직원은 정부의 제2건국 운동에 적극참여하여, 정직과 성실, 강인함을 요구하는 한전기공(주)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이겨 나갈것을 다짐하였다.

건설현장에서 보기

드문 무재해 10달성을 이룩한 안양지점 전직원들은 사고 없는 안전한 한전기공을 만들어 계속 15배 20배 무재해를 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기술력 평가

건설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시에도 설계나 감리용역과 같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능력있는 기술자를 계약제로 고용하는 프리랜스기술자제도를 설계용역분야에 시범 도입하는 한편,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12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선정심사 강화이다.

종전에는 안전진단업체 선정방법에 대해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진단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안전진단용역 발주시에도 설계나 감리분야와 같이 입찰자자격 사전심사를 거쳐 능력있

는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진단업체에 대한 기술력 평가가 강화된다.

둘째, 프리랜스기술자제도의 시범 도입이다. 종전에는 설계용역업체에 상시고용된 기술자만이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스기술자도 프로젝트별로 계약직의 형태로 설계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업계의 인력고용부담이 줄어들고 우수기술인력의 활용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셋째, 건설기술자 교육기간 단축이다. 건설관련업체 대표자에 대한 교육기간이 종전 3주이상에서 2주이상으로 단축되고, 기술사나 건축사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종전 2주이상에서 1주이상으로 단축됨으로써 업무공백해소 등 건설기술자의 교육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넷째, 발주청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선이다. 건설공사 설계

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각 발주청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에는 종전에 관계전문가와 공무원만이 참여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대표도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부당한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등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감시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설계자문위원 POOL제를 도입, 자문위원 선정대상을 국내관련전문가 전체(약 3,000명)로 확대하고 자문위원을 무작위 선정토록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금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체계를 확립하고, 건설시장의 인력고용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한편 부실시공방지 등을 명목으로 파다하게 이루어진 각종 규제와 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마련

노동부는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 계획이 금년에 완료됨에 따라 새천년을 준비하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의 중·장기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04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2000년대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인적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여건변화를 대응하

는 중장기적인 산재예방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동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노·사·정이 해결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이기에 계획의 입안에서 확정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걸쳐 의견수렴 절차를중시하여 노·사는 물론 학회, 재해예방단체 등 모든 이들의 여망을 담아 최종확정한다.

2000년 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1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산업재해 취약부문 집중 지도·지원 ▲ 산업안전·보건 제도 선진화와 서비스의 향상 ▲ 노·사의 안전의식 함양 ▲ 공공 - 민간 재해예방기관간 역할 설정과 협력체제 강화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효율화의 5개로 전개될 것이다.

## 고속철도 소음기준 완전 합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94. 6월 이후 5년이상 이견을 보여온 고속철도 소음기준에 대하여 소음관련 전문가들의 중재하에서 양부처간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부고속철도 건설의 최대 걸림돌이 완전 해소되었다.

고속철도 소음기준은 '92년 차공 당시 잠정적으로 일본 신간선을 기준으로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바 있으나 '94년도에 프랑스 TGV로 차종이 선정되자 건설교통부는 현행 프랑스 기준에 맞는 등가소음도 Leq65데시벨(dB)로 소음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최고소음도에 준하는 수준으로 소음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과 파다한 소

음기준 설정으로 승객의 조망권을 차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서 5년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금년 9월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서 두 부처에서 12명의 소음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고속철도 소음기준설정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이 조사단은 경부고속철도 방음벽 시공현장과 일본 신간선 및 프랑스 TGV현지 방문을 통하여 국내외 소음기준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소음기준안을 설정하고 12월 4일 정부에 이를 건의하였다.

이 기준안에 의하면 고속철도의 일반적인 소음기준은 63~67dB, 시험선구간은 65~70dB, 고속철도개통후 15년 이후의 장래목표치는 60~65dB를 제시하였다.

이는 프랑스에서 현재 건설중인 떼제베(TGV) 지중해선의 소음기준(62~67dB)에 상응하는 수준으로서 우리나라 현행 도로소음기준(68~73dB)이나 철도소음기준(70~75dB)보다 강화하여 고속열차의 운행에 의해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경부고속철도 전체(412km) 노선중 14%인 56km구간에 대해서만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고, 이중 주거지역 및 취락지역 등을 지나는 7km구간은 2.6m높이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49km구간은 2m이하의 방음벽을 함으로써 고속철도승객의 조망권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망직종 및 훈련직종 선정

노동부(장관 이상룡)는 12월14일 신산업분야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유망직종 300선 및 훈련직종 50선을 선정 발표하였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연구한 동 직종은 21C 지식기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산업 31개 분야를 분류한 후 각 신산업 별로 지식기반 경제 환경하에 새롭게 등장할 직업군을 파악, 유망직종 300개를 선정하고 이중 훈련수요가 많은 전자회로CAD, 웹마스터, 마케팅 컨설트 등 50개 훈련직종을

선정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신산업환경분석, 산업분야별 전문가 및 각계 전문가의 의견조사, 2,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산업분야 인력수요조사, 훈련기관 수요조사와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실시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전문가 회의를 거쳐 선정된 것이다

선정된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금년에 직무분석을 실시하고 직업훈련 기준 및 커리큘럼 개발을 하게 된다.

동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기준 및 커리큘럼이 개발되면 2000년에는

이를 CD로 제작 공공·사업내 등 직업훈련기관(600여개소)에 보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이 실시 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동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등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번에 선정된 유망직종 300개중 개발되지 않은 직종에 대하여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으로 개발할 계획이다.